

■ 신년사

우리 모두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예로부터 여명을 밝히는 광명의 상징이자 불행을 쫓고 복을 부르는 상서로운 동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어둠을 사르고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알고, 힘찬 울음소리로 만물을 깨우는 삶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였고, 국민들은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공존과 공생보다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려는 국제정세 역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정유년 새해는 희망과 환희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국내 상황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촛불민심을 통해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음을 이미 증명하였습니다. 어떤 국가의 시민들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며, 수많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민족의 힘과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러한 용기의 힘으로 다시 한 해를 힘



자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차게 열어갑시다.

임제스님께서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곧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다면 역사는 정유년을 희망과 행복의 해로 기록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닭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다리보살의 화신이며 약사여래를 수호하는 12나한 가운데 진달라(眞達羅)를 상징합니다. ‘진달라’는 부정과 불의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일체중생을 구제하시는 호법신장이니, 그 기운과 복덕이 모두에게 두루 가득한 정유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일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고향을 찾는 서산대사처럼, 한 해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에 있음을 깨달아 새해를 밝고 희망차게 열어갑시다. 밝은 지혜로 언제나 깨어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계 지니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2016년 18회 6만89명 수계

“저희 수계자들은 무사이래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 아만과 방만한 마음으로 한량없이 무거운 죄업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몸과 마음과 뜻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예신병을 육성하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고 있는 장병들이 호국연무사에서 ‘2016년 마지막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호국연무사(주지 원경 최원철 법사)는 지난 12월24일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을 계사로 초청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으며 훈련병 4000여 명이 참석해 오계를 받고 참다운 불자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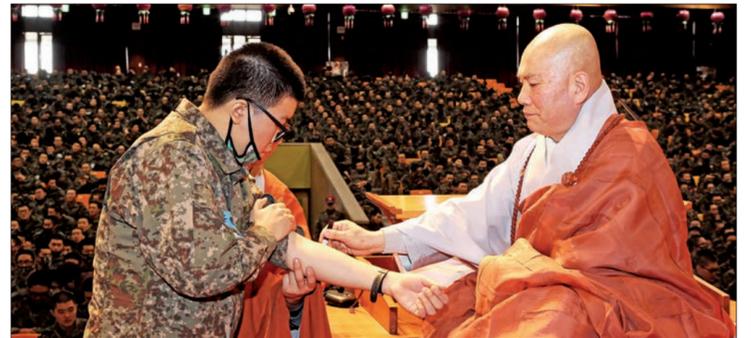
이날 수계법회에는 김옥분 불교어머니회장

과 영평사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포교사단 대전 충남지역단과 전북지역단 포교사들이 참석해 연비를 도왔다. 이날 수계법사로 법석에 오른 환성스님은 “계(戒)는 악(惡)을 없애고 선(善)을 드러내는 근본이 되고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 되는 것”이라며 “오계를 받아 잘 지키면 사회가 안정되고 자기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존재들의 행복도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호국연무사에서는 1월16일 군중교구장 정우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하기 시작해 한 해 동안 총 18회에 걸쳐 훈련병 6만89명이 수계를 받았다. 2015년 5만6483명에 비해 9.3% 증가한 것으로 법당을 새로 신축하고 매년 수계를 받는 훈련병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가 끝나고 걸그룹 소울퀸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노래와 댄스로 훈련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시영 총청지사장 isy@ibulgyo.com



호국연무사는 지난 12월24일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을 계사로 훈련병 4000여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희망2017,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 불기 2561년 신년특집 60면 발행

- ‘새해벽두에 만난’ 원로의원 대원스님 A5면
- 성전스님 ‘촛불을 타고 새해가 왔다’ A6면
- 홍사성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 덕목’ A7면
- 새해 방담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A11면
- 결사70주년 봉암사와 수좌 적명스님 A12-13면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 ‘웃음기술자’ 개그맨 이수근의 소원 A17면
- 영석고 학생들 ‘불교, 알고 나니 참~’ A22면
- 4대가 화합 정진하며 살아가는 옥련선원 A23면
- 금강경 암송 1000명 이끈 김명옥 씨 A26면
- 탁구로 재활한 장애인 주재창 복지사 A26면
- 정유년 불교 그리고 지명 이야기 A32면

시간이 멈춘 곳, 그곳에도 행복이...

- 신춘문예 당선작 시·소설·동화·평론 B1-11면
- 시간이 머문 사찰, 지금 그곳에는~ B16면
-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B17면

불기2561년,
새로운 정유년 해가 밝았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속에서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능인향당이 기원합니다!



침향의 명가 - 능인향당



홈페이지 www.능인향당.com
명인이 만든 천연자연향(법당, 기도명상용향 / 아로마향 / 침향)
베트남산 침향 합장주, 108주 / 프리미엄급 침향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길 17-11 2층
전화 051-746-6818

정유년 신년법어 <1면에 이어>

‘어떻게 부정물이 진리를 설할 수 있는가? 왜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수십 리 먼 길을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골짜기에서 짙동 같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에 크게 깨달아 마음의 고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승을 지었습니다.

溪聲自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學似人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팔만사천 지혜의 말씀인데/ 산색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 밤이 옵에 팔만사천 법문을/ 다른 날에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서 보일꼬.

이후로 소동파는 남은 생을 마음의 고향에서 지혜와 자비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근원이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민족입니다. 산하대지(山河大地)와 산천초목(山川草木)이 제각각 진리를 표현하고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화 속에 주위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상호관계 속에 서로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과 공존 속에 원숙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는 반목과 대립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호존중과 자비연민이 실현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허물을 성찰하고 국민복(國民福)을 염원하며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에게는 자비연민을 베풀어 원용화합의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붉은 해가 떠오르니 온 세상이 찬란한 화상세계(華藏世界)요, 나날이 설날이며 시시(時時)가 태평성세(太平盛世)로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